

여류시인 기생 매창의 사랑이야기 창극으로 승화



부안 출신인 매창은 황진이 일지홍 등과 함께 뛰어난 글재주를 자랑했다.



매창은 선비 유희경과 신분 차이이를 극복한 사랑을 시를 통해 이어갔다.

창작 '이화우 흥날릴 제' 31일 고창문화의전당 공연

조선시대 대표적인 여류시인이었던 매창의 삶과 사랑이야기를 담은 전라북도립국악원(원장 박승기)의 창작창극 '이화우 흥날릴 제'가 오는 31일 오후 7시 30분에 고창문화의전당 대극장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전라북도립국악원의 전통 예술 관람기획 제공을 통한 도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전라북도 내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순회공연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이번 작품은 2015년 전주에서 초연된 이후 크게 호평을 받아 그 작품성과 대중성이 인정된 작품이다.

창작창극 '이화우 흥날릴 제'는 전북 부안에서 나고 자란 매창(1573-1610)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으로 매창은 황진이, 일지홍 등과 함께 뛰어난 글재주가 일품이었던 당대 최고의 인물들과 풍류를 나누었던 기생이다.

특히 기생의 신분으로 조선시대 천재로 평가받았던 허균이나, 이귀 등과 교류할 만큼 문화적인 소양이 뛰어난 인물이었다.

또한 매창은 시에 뛰어났던 천민출신의 선비 유희경과 신분 차이이를 극복한 사랑을 시를 통해 이어갔다.

단이 풀어내는 우리 소리의 유장한 맛과 힘에 실어 고창군민에 선보일 예정이다.

제작·작정은 조봉달(창극단장), 대본은 김경호(국립남도국악원 성악단 악장), 연출은 정진관(사단법인 푸른문화 이사장), 각색은 최정(작가), 채보·편곡은 이화동(전북대 한국음악학과 교수), 음악감독·지휘는 조영민(관현악단장), 안무는 김미숙(무용단 지도위원)이 맡았다. 이번 공연에서 작창을 맡은 조봉달 단장은 "합창은 장중하고 화려하게,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는 전라도 굿풍으로 작창을 시도해 매창의 시혼을 달래고 절개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담았다"며, "특히 '상사별곡'은 심금을 울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날 공연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연에서도 창극단을 비롯해 무용단과 관현악단 그리고 상여소리꾼(이 특출한 명창 보성소리축제 대령상)이 특출한 비룡하고 애절한 혼의소리를 담은 전통장계문화를 재현해 펼쳐 보인다.

주인공인 매창 역에는 장문희 명창이, 유희경 역에는 김도현 단원이, 도창에는 김세미 명창이 나선다.

허균 역에는 이충현, 서우관 역에는 김광오, 삼룡이 역에는 박현영, 어린 매창 역에는 한단영이 출연하며, 합창지도는 차복순 지도위원이 맡았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문화의전당 홈페이지(<http://culture.gcllr>)나 문화의전당 사무실(063-560-8041)로 문의하면 된다. 공연은 무료. /고창=김영식 기자

우아문화의집 새단장 '산뜻'

우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가 새롭게 단장을 마치고 오는 30일 오후 4시 30분 우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에서 개관식을 갖는다.

문화의집은 문화예술 활동 교류를 통해 문화적 감성을 공유하려는 사람들의 공간으로 지역주민 누구나에게나 열려 있다.

행사는 개관을 축하하는 동아리들의 풍물 길놀이 공연으로 시작되며 생활문화예술동호회들의 공연 및 우리 동네 사진전 그리고 봄맞이 생활 문화장터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개관을 축하하는 의미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소박한 식사 자리가 마련되며 오후 6~7시엔 사랑과 희망을 노래하는 작은 음악회 공연이 펼쳐진다. 문의 245-8455로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70년대 추억을 떠올리세요"

국립민속박물관 공연극 '그때 그랬지' 선보여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천진기)은 이달부터 10월까지 문화주간 토요일에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추억여행 공연극 '그때 그랬지'를 선보인다.

국립민속박물관 야외 전시장 '추억의 거리'를 배경으로 기획된 것이다. 오직 국립민속박물관에서만 만나 볼 수 있는 공연이다.

참여 가족들은 '시간의 문' (전차)을 통과해 1970년대 '추억의 거리'로 들어선다. 머리 길 이 단속을 이야기하는 이발소 아저씨와 장난 전화를 받느라 바쁜 만화방 아줌마를 만나고, 다방에 들어서면 느끼한 목소리의 DJ가 신창곡을 들려준다.

캠프질도 해보고 사진관에서 교복을 입고 사진도 찍어본다. 야화 교실에서는 아빠와 지우개 따먹기 게임도 한다.마지막에는 1974년 어느 학교 교실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 뮤지컬 '몽당연필'을 관람하면서 "그때 그랬지~"하면서 70년대를 이해할 수 있다.

참가 대상은 6세 이상 어린이를 비롯한 가족들이며, 인터넷 사전 접수와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공연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이며 1회 약 100명이 관람할 수 있다. <http://www.kidsnmf.gakr> /정해은 기자

자연속에서 즐기는 무주산골영화제 감찍한 포스터 공개

아기자기한 동물 캐릭터를 활용하여 무주의 특성 살려 6월 2일 ~ 6일까지 5일간 치러지는 영화제 홍보 특특

설렘, 울림, 어울림의 영화제, 무주산골영화제가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의 공식 포스터를 공개하며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28일에 공개된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 공식 포스터는 관객과 동물이 친구가 되어 영화제를 즐기기에 달려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낮과 밤을 섞어놓은 것처럼 보이는 색상은 신비한 느낌을 주며 영화제 고유의 색상을 활용해 연출된 캐릭터들은 아기자기하면 서도 귀여운 매력에 돋보인다.

포스터 원작자인 박다(박영준) 작가는 "산골, 캠핑, 영화를 키워드로 무주산골영화제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색상을 살려 작업했다. 자연 속에서 관객이 동

물과 친구가 되어 영화를 즐기러 가는 모습을 통해 답답한 도시를 벗어날 수 있음을 기대하게 하고 싶었다" 라고 제작의도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 공식 포스터는 무주산골영화제 홈페이지와 블로그, SNS 등 온라인과 전국의 예술 독립영화관 등 오프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무주 및 무주 인근 지역의 공공기관에도 비치될 예정이다.

무주의 청정자연 속에서 다채로운 영화와 이벤트로 채워질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는 무주 예체문화관, 덕유산국립공원 대집회장 등 무주군 일대에서 6월 2일(목)부터 8일(월)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산골영화제 공식포스터

문화재청, 우수한복사진 공모전

문화재청은 한국문화재단과 함께 한복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한복 대중화를 위한 '한복사진 공모전'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제2회 궁중문화축전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한복사진 공모전은 한복 나눔이를 주제로 한복의 아름다움과 맵시를 표현한 사진이면 응모할 수 있다.

참여작별 응모작품 수는 제한이 없으며 규격에 맞는 사진(용량 10MB 이하, 확장자 JPG)을 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2016hphoto@naver.com)으로 다음달 1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문화재청은 응모된 사진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1점(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상금 150만원) ▲최우수상 2점(문화재청장상·상금 100만원) ▲우수상 50명(▲상려상 2점(한국문화재단이사장상·상금 30만원) ▲가자 43점(50명 상당 문화상품권) 등 총 50명의 수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심사결과는 다음달 18일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akr)과 궁중문화축전 누리집(www.royalculturefestival.org)을 통해 발표되며 수상자 50점은 궁중문화축전 기간인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경복궁 근정전 회랑에 전시된다. /정해은 기자

국립극장 공연예술특강 개설

국립극장(극장장 안호상)이 4월26일부터 5월31일까지 2016 국립극장 공연예술특강-우리의 흥과 멋, 깊이 들여다보기'를 개설한다.

전통예술 감상 수요에 부응하고, 전문적인 시각으로 전통 공연예술 이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한국무용·한국음악·창극 등 전통공연예술 장르를 다룬다. 6주간 총 6회 강의로 구성된다. 국립극장 주요 공연에 참여해온 한국무용·한국음악·창극 분야 전문가들이 2회씩 강의할 예정이다.

공연예술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 대상이다. 6회 전체 강좌 수강뿐 아니라 원하는 강좌만 수강하는 개별 신청도 가능하다. 전체 강좌 수강 신청은 4월25일까지, 개별 강좌 신청은 강좌일 전날 오후 5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정해은 기자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lab.com/>

<2016년 3월 29일>

<p>▷쥐띠 46년생: 아랫사람으로 인해 경사가 생기는 운. 60년생: 동기간으로 인해 마음 상한 일이 생기니 함께 일을 도모하자는 말과 혼자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 72년생: 좋은 일 하려다 원망을 들을 수 있는 운. 84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일에도 집중하기 어려운 운.</p>	<p>▷소띠 49년생: 구설수와 시비가 따르는 운. 61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니 매사에 주의가 필요하고 투자는 불리하니 삼가라. 73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뒷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85년생: 사소한 일도 실수를 갈 수 있는 운이다.</p>	<p>▷호랑이띠 50년생: 경쟁자로 인해 고민될 일이 생기는 운. 62년생: 처음에는 원망하나 나중에 고마워할 일이 생기니 일시적인 감정으로 행동하지 마라. 74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 86년생: 금전적이 좋아지니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p>	<p>▷토끼띠 51년생: 자신만의 생각에 몰두해 상황을 판단하지 못할 수 있다. 63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손윗사람의 도움을 받으라. 쉽게 해결될 것이다. 75년생: 다른 사람과 화합하거나 모임에 참석하기 좋은 운. 87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서 좋은 결실을 맺으며 인정을 받을 수 있다.</p>
<p>▷용띠 52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일찍 움직여라. 64년생: 시비가 발생할 수 주의하라. 76년생: 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고 상황을 주시하면서 조심스럽게 나아가라 한다. 88년생: 자신보다 이리디고 무시하는 언행은 삼가라.</p>	<p>▷범띠 53년생: 번돈이나 변화를 기지만 출항일이 생기는 운. 65년생: 익숙했던 일에 실수나 빚질 수 있으니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77년생: 생각하던 것을 구체화 시켜서 조심스럽게 행동으로 옮겨보라. 89년생: 무심코 했던 행동으로 구설수가 발생하고 원망을 살 수 있다.</p>	<p>▷말띠 54년생: 특이할 것이 없으므로 여성은 남성과의 트러블을 피해야 한다. 66년생: 금전적이 좋아지니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좋은 결과가 얻는다. 78년생: 인적이 있는 운이다. 90년생: 동기간에 화합하면 좋은 일이 있으나 체대감을 갖지말라.</p>	<p>▷양띠 55년생: 우물김에 빠질 수 있는 운. 67년생: 작은 것을 얻었다고 더 큰 것을 욕심내지 마라. 79년생: 다른 사람과의 의견이 맞지 않아 기분 상한 일이 발생하니 일시적인 것이니 마음에 두지 마라. 91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지출이 많아지는 운.</p>
<p>▷원숭이띠 56년생: 믿고 있던 것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되는 운. 68년생: 최악의 상황을 예측하며 행동하면 최고의 결과로 얻게 될 것이다. 80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을 오히려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92년생: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니 혼자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p>	<p>▷닭띠 57년생: 같은 화려하나 내면은 부실한 운으로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한 운이다. 69년생: 다른 사람이 자신과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81년생: 상대병에게 오히려 할 수 있는 운. 93년생: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에서 말실수나 조심하라.</p>	<p>▷개띠 48년생: 매시 생각한 것보다 좋은 결과가 얻게 되는 기분 좋은 운이다. 60년생: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는 운. 70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중간 중간 막히는 운. 82년생: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에 욕심을 내지 마라.</p>	<p>▷돼지띠 47년생: 금전적으로 나쁜 운은 아니니 욕심은 화를 부른다. 59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하는 운. 71년생: 투지나 투기는 금물. 금전을 주고받는 일도 불리하니 삼가라. 83년생: 문서에 특은 운.</p>